

### 청자자판(靑瓷磁板)

정중부의 정변 이후 명종은 무신들의 뜻에 따라 지방관이 없는 지방군현에 감무(監務)를 대대적으로 파견했다. 명종2년에 이의방 형인 이준의는 53곳의 속현에 감무 배치를 주청하기도 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 공을 세운 무신들에게 감무제를 활용했다. 무신들에게 주어야 하는 중앙의 관직은 한계가 있었고, 지방에도 무신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무는 지방의 특산품을 장려하여 세수를 올리고, 유랑민들을 정착시켜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했다. 도강현에 감무가 내려온 시기는 명종2년 때였다. 도강현 감무의 역할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청자생산을 독려하는 일이었다. 의종이 거제도도로 유폐된 이후부터 명종 원년까지 청자수요가 끊기자 탐진 청자의 생산도 시들해졌던 것이다.

도강현 감무는 대구소 및 칠량소 향리를 지휘 감독했다. 왕명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향리들은 감무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도강현 감무는 부임하자마자 대구소 향리를 만나 청자생산을 채근했다.

“평장사 공께서 최상품 청자를 개경으로 보내라고 했소. 최상품 청자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지 마시오.”

탐진 토성 족장회의에서 최근에 추대된 대구소 향리는 예고도 없이 나타난 감무의 지시가 얼떨떨했다. 무신 출신인 감무는 옆구리에 긴 칼을 차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고압적이었다.

“알겠그만요. 근디 청자는 도공덜이 맨들지 지가 머시기허는 것은 아니그만요.”

“향리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독촉하라는 말이오.”

“평장사 공은 큰 부자인 모양이그만요.”

“평장사 공이 누구인지 모르오? 나라를 구한 정 장군님이오.”

정 장군이란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정중부를 가리켰다. 그는 명종을 옹립한 뒤 폐위된 의종의 광정동택(藿井洞宅), 관북택(館北宅), 천동택(泉洞宅) 등 세 사저와 그곳에 있던 수많은 금은은 물론이고 진기한 보물들을 이의방, 이고 등과 나누어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문관직인 참지정사와 이어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올랐으며 훈(勳) 1등 벽상공신(壁上功臣)이 되었고, 명종2년에는 서북면 판사행영병마 겸 중군병마판사(西北面判事行營兵馬兼中軍兵馬判事) 자리까지 겸했던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쥔 셈이었다. 그를 따르는 무신들은 청자를 완상용으로 사들일 생각이 없었다. 최상품의 청자들을 사들인 뒤 갖고 싶어 하는 문신들이나 호족들에게 팔아 더 많은 재산을 불리고 싶을 뿐이었다.

“알겠그만요.”

“혜음원에 보낼 청자자판과 청자전도 준비해 두시오. 청자운반선이나 조운선 편에 올려보낼 것이오.”

“확인해 볼 것인께 염려 마시지라.”

“예종께서 혜음원 안에 혜음사를 건립하시고 인종께서 행궁을 조성하신바, 의종께서 행궁과 사찰을 새롭게 꾸미시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소. 폐하께서 선왕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니 그렇소.”

혜음원은 예종17년(1122)에 지어진 이래 지금까지 개경에서 남경(한양)을 오가는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숙박하는 왕실 소유의 별원이었다. 도강현 감무가 지시한 청자자판이나 청자전은 혜음원 건물을 좀 더 화려하고 격조 있게 장식해 줄 건축부재였다. 청자자판은 그림수준의 상감기법이 들어갈 것이고, 청자전은 양각이나 음각의 문양이 새겨질 터였다.

도강현 감무가 다녀간 뒤 대구소와 칠량소 향리는 천개산 산자락이나 천변의 용운마을이나 밤나무골마을, 미산포가 가까운 사당마을의 가마들을 돌아다니면서 도공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도공들은 하나같이 치소 향리를 반겼다. 특히 사당마을 늙은 도공은 향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메, 청자자판을 맨들기는 헌디 기약이 읍응께 심이 나지 않드랑께요.”

“이번에는 반다시 실어간다고 헌께 쫓깐만 지다리씨요”

“청자자판 말고도 다른 청자기물도 양신 맨드씨요. 판로는 걱정허지 않아도 되겄소.”

“향리 나리께서 생각허고 있는 디가 있는게라우?”

“향리를 맨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어처케 알겄소? 도감 나리께서 상품만 맨들믄 서울 정 장군께서 다 사갈 것이라고 그란께 헌 말이요.”

“아이고메, 정 장군이러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분이 아니요?”

“무신 출신이지만 지금은 문신도 겸해서 신하 중에서 젤로 높은 평장사라고

협디다.”

“그라믄 틀림없그만이라우. 많이 맨들어 봄가실 가마에 겁나게 넣어야  
쓰졌그만요.”

“나는 모냐참 향리허고 거시기헌께 많이도와주씨요.”

이에 늙은 도공이 말했다.

“탐진 가마덜을 뗫 바꾸만 돌믄 금시 알 것이겠지라우. 까막눈인  
우리덜허고 달리 향리 나리께서는 문식도 있고 헌께 말이요.”

“행수도공께서 고로코름 봐주신께 고맙소.”

대구소 향리가 늙은 행수도공의 가마를 나서려고 하자 그가 말했다.

“향리 나리, 지가 맨들어 놓은 청자자판이 있는디 한 번 불러요?”

“사실은 나도 청자자판이 뵈인지 보고 잤소.”

대구소 향리는 늙은 도공을 따라 그의 동막으로 갔다. 그의 작업장인  
동막은 가마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산자락 느티나무 밑에 있었다.  
늙은 행수도공은 대구소 향리에게 자신이 만든 청자자판을 보여주었다.  
선적을 위해 청자자판 사이사이에 짚을 넣어 새끼줄로 묶어 놓았지만  
몇 개는 전시용으로 벽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있었다.

직사각형의 청자자판은 가로길이가 어른 손으로 세 뺨 남짓이고,  
세로길이는 가로길이의 반쯤이며 두께는 어른 손가락 한 마디 정도였다.  
늙은 도공이 말했다.

“두께는 지 검지 손꾸락 한 마디 남짓인데 두께 땀시 구을 때 자꼬 터져부렀그만요.”

“시방 이 정도 두께가 적당허단 말인가요?”

“얇으믄 깨져불고 두꺼우믄 터져불드랑께요. 으째서 그란지는 모르지라우. 불이 고로크롬 심판을 헌께 말이요.”

대구소 향리는 늙은 행수도공의 두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청자자판의 그림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 그림을 행수도공께서 그린 것이 맞소?”

“지가 상감했제 누가 해준대요. 지 말고도 상감허는 도공덜이 많어라우.”

“그래요?”

“시방은 칠량 도공덜도 상감허는디 구신이 다 되부렀지라우.”

“나는 시방 이 자판을 봄시로 사람이 맨든 것이 아니라 구신이 그린 거라는 생각을 허고 있소.”

“나리께서 첨 본께 그라졌지라우.”

청자자판 중앙에 마름꽃 문양의 능화창(菱花窓)을 백토와 흑토로 두 겹 상감하고, 그 안에 모란꽃은 백토로, 줄기와 잎은 흑토로 상감하여 가득 채웠는데, 섬세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치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은 듯했다. 그리고 능화창 밖에 직각사형으로 백토와 흑토로 두 겹 액자를 만들었는데, 구름과 학을 상감한 그 안이 또 장관이였다. 흰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학 여덟 마리가 능화창 안의 모란꽃 향기를 맡으려는 듯 하나같이 그쪽으로 목을 길게 빼어 날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청자자판에는 직사각형의 액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감되어 있고, 그 안에는 검은 넝쿨에 달린 흰 꽃들이 한 방향으로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는 위쪽을, 또 한 송이는 아래쪽을 향해 피어 있어 상감한 도공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이 갔다.

“이 청자자판을 도공덜은 뭇이라고 부르요?”

“청자에 모란허고 학, 구름을 상감했다고 ‘청자상감모란구름학무늬자판’ 이라고 부르지라우. 갖다 붙이는 것이 이름이지라우. 고것이 뭐 중허다요. 우리덜은 그냥 청자자판이라고 부르그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청자자판은 늙은 행수도공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요것은 지가 맨든 것이 아니라 지 가마 옆에 있는 도공이 맨든 것이 그만요. 지도 요것맨치로 맨들어 불라고 늘 보고 있지라우.”

“이 자판을 맨든 도공도 만나보고 짚소.”

“시방은 읍그만요. 능성 쌍봉사에 가서 메칠 묵고 온다고 했어라우.”

“도공이 먼 디 있는 절에 으째서 가 있는 것이요?”

“배울 것이 있음께 가지라우. 지도 한 번 따라가봤는디 거그 절에 있는 사리탑이 으찌나 정교헌지 말이 안 나오드랑께요.”

팔각기와 지붕 아래에는 갖가지 천녀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다. 옷자락을 날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녀, 피리를 부는 천녀, 비파를 켜는 천녀, 장구를 치는 천녀, 춤을 추는 천녀, 누워서 자기 다리를

이빨로 문 사자 등이 단단한 화강암인데도 살아 있는 듯 생생하게 조각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림사 탑에는 영금영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조각해 놓았고, 어느 절 벽화에는 동자가 부처에게 발우공양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도공들은 사찰에서 주문한 청자기물에 그러한 조각이나 그림들을 상감하려고 했다.

행수도공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청자자판도 정교하기는 방금 본 것과 다르지 않았다. 대구소 향리가 두 번째 본 청자자판은 물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었다. 물가 가운데는 꽃이 핀 나무와 대나무, 갈대가 있고 물 위에는 두루미들이 각기 다른 동작으로 놀고 있는 백토의 상감이었다. 서 있는 두루미, 물속에 고개를 넣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두루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두루미, 물가로 날아가는 두루미, 자기 깃털을 쪼고 있는 두루미, 물위에 둥둥 떠 있는 두루미 등등 각기 다른 동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자판은 뭇이라고 부르요?”

“갓다 붙이믄 되겠지라우. ‘청자상감갈대물새무늬자판’이라고 허믄

되겠지라우.”

대구소 향리는 물새를 두루미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은 아직 배우는 입장이지 무엇을 품평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두루미를 학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부리와 꼬리 부분이 검기 때문이었다. 분명한 것은 부리가 노랗고 목이 길지 않은 왜가리는 아니었다.

“절에 갈 청자자판은 다른 도공이 맨들고 있그만요.”

“어느 절인게라?”

“혜음원 안에는 행궁도 있지만 절도 있다고 들었그만요.”

“절에 들어갈 청자자판은 누가 맨들고 있소?”

“용운마실에 가든 여그 사당마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지라우.”

도강현 감무의 지시를 받은 대구소 향리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바로 용운마을 가마들을 둘러보았다. 늙은 행수도공의 말대로 용운마을 도공들 중에는 절에 들어갈 청자자판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청자자판들이었다. 마을 초입에 사는 사십대로 보이는 도공의 청자자판은 사당마을에서 보았던 것과 분위기가 확 달랐다. 그의 청자자판에는 화조도 같은 흑백상감들이 많았다.

매화나무와 대나무가 흑백으로 상감되어 있는데, 매화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매화나무는 꽃이 피어 있어 향기가 나는 듯했고, 까치는 각각각 우짖는 것처럼 보였다. 탐진 마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의 청자자판이었다. 다른



한 도공의 동막에는 모사한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청자자판은 모사한 그림들을 흑백 상감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문외한이 보아도 사찰로 갈 청자자판이 틀림없었다. 도공이 대구소 향리에게 보고 하듯 설명했다.

“시방 보고 겨시는 것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선재동자가 구법을 위해 스승을 찾아다니는 그림이그만요. 향리 나리께서 보시고 있는 그림은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찾아가 합장하고 있는 그림이지라우.”

젊은 도공은 만덕사로 출가했다가 여자를 만난 바람에 환속한 도공이었다. 그래서인지 불경에 해박했다.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입법계품’은 방대한 <화엄경> 내용 중에서 출가자나 재가자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품(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참고하고 있는 책은 송나라 불국선사의 <문수지남도참(文殊指南圖讚)> 모사본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사된 것이 아니라 53명의 선재동자의 스승 중에서 문수보살, 덕운비구, 해운비구를 시작으로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누가 모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마도 사신이 들어가 모사해온 것이 아닌지 짐작해 볼 뿐이라고 말했는데, 아무튼 젊은 도공은 청자향로를 탐진에 내려왔던 개경의 한 관원에게 선물하고 1년 뒤에야 모사본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소 향리가 첫 번째로 본 그의 청자자판은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찾아간 장면이었다. 구름 속에서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은 연꽃좌대에 앉아서 한 손은 연꽃을 들고, 또 한 손은 구름 밖으로 팔을 길게 뻗어 선재동자의 머리를 만지려 하고 있었다. 두 손을 합장한 채 높이 쳐든

선재동자의 모습은 구도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이고, 지그시 선재동자를 바라보는 보현보살은 ‘네 뜻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선재동자와 보현보살의 마음을 표현한 청자자판은 거룩한 느낌이 들었다. 대구소 향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자 젊은 도공이 말했다.

“향리 나리, 이 자판이 혜음사에 간다고 해서 맨든 것입니니다요. 그런데 개경에서 소식이 읊습니니다요.”

“작년에 도강현 감무 나리가 오셨네. 궁께 곧 청자운반선이 올 것이니 쪼깐만 지다리시게.”

“청자운반선이 안 온께 묵고 사는 것이 심들어져부렀어라우. 수년 전에는 대구소 창고에서 도공덜에게 곡석을 나눠주기도 했그만이라우.”

“알졌네. 내가 향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고 문을 열지 않았네. 궁께 쪼깐만 있어 보게.”

청자운반선이 끊긴 뒤로 삶이 힘들어진 것은 도공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친인척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도공들은 청자수요가 줄어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사꾼이나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 몇몇 도공들이 가마를 떠나지 않은 까닭은 그나마 사찰에서 주문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쌍계사나 만덕사, 무위사나 월등사 등은 탐진 도공들에게 개경의 청자수요자들과 달리 언제나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었던 것이다.

도강현 감무는 가끔 대구소에 들러 독려했다. 그러면서 송나라, 금나라의 정세를 들려주었다.

“청자자판은 송나라,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관원들 얘기인데 우리

고려밖에 없다고 하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보다 뛰어난 데가 많아요. 청자를 가지고 건축부재까지 만들고 있으니 말이오.”

“참말로 송나라에는 청자자판이 읊는게라우?”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도강현 위쪽인 무안군에 나와 같이 한낱한시에 내려온 무안군 감무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오.”

“그렇다면 사실이겠지라우.”

“송나라에 없으니까 탐진 청자자판은 천하제일인 것이오.”

나주목에 군현으로 속해 있던 무안군도 명종2년에 도강현과 같이 감무를 파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무안군 감무는 일찍이 사신 무관으로 송나라를 다녀왔는데 그에게 도강현 감무가 탐진 청자자판을 자랑하니 송나라에는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 뒤부터 도강현 감무는 탐진의 청자자판을 더 귀하게 여겼고, 대구소를 가끔 찾아와 향리에게 청자자판 생산을 주문했던 것이다.

도강현 감무의 말대로 청자운반선은 곧 개경 벽란도에서 내려왔다. 도공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청자자판을 다 선적하고 또 네 달을 미산포에서 정박했다가 상감한 청자항아리와 청자주전자, 청자향로, 청자베개 등을 마저 싣고 떠났다. 그러나 청자운반선이 가고 난 뒤 개경은 또 정변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명종9년(1179).

평장사 겸 중군병마판사 벼슬을 내려놓았던 정중부는 무신독재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경대승(慶大升)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아버지의 정변동지인 이의방을 살해한 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정중부도 이십대의 경대승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경대승은 정중부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宋有仁)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명종은 누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든 방관자의 위치에 섰다. 문신도, 무신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다. 명종은 정중부에서 이의방으로, 또 이의방에서 정중부로, 또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무신집정이 바뀌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던 것이다. 명종은 선왕의 유언과 상관없이 무신에 의해 왕위에 올랐듯 통치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



상벌을 주는 통치도 늘 집권 실세무신의 눈치를 살폈다. 명종 스스로 “상벌은 본래 임금의 권한인데, 근래 조정의 힘 있는 신하가 권위나 위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사사롭게 하여 항상 지켜야 할 도리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탄식할 정도였다. 실제로 정중부의 가노가 법을 어겼지만, 가노 대신에 관리에게 파면과 좌천의 벌을 내린 적도 있었던 것이다. 공주를 궁주(宮主)로 봉하는 날도 이의방의 태도는 기고만장했다. 이의방 등 무신들이 기녀를 데리고 대취해서 박수치고 노래하는 소리가 내전까지 들렸지만, 그들의 무도한 언행은 거리낌이 없었다. 임금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무신들의 독재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던 명종에게 자신의 울타리였던 어머니 공예태후가 명종13년(1183)에 눈을 감았다. 전년에 넷째 아들 원경국사 충희가 사망하자 무신들에 의해 화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충격 때문에 병을 얻어 75세로 유명을 달리했던 것이다.

명종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공예태후가 병석에 눕자, 명종은 손수 약을 달이고 간병하느라 여러 날 동안 옷을 벗지 않았으며, 태후의 병이 더욱 위중해지자 너무 울어서 눈꺼풀이 물러터질 정도였다. 태후가 죽은 다음에는 아침저녁으로 빈소에 가서 울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재상들이 애통한 마음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명종에게는 의지할 데가 사라져버렸으므로 비통하고 눈앞이 캄캄했던 것이다.<계속>